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선거 정책

‘교구 중심’ vs ‘청정승가’, 한국불교를 짊어질 종책은?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이 선거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운영 쇄신 및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단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 "교구 중심이 불교 미래"

가장 먼저 정책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자승 스님이다. 자승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정책 발표회를 열고 8대 운영기조, 13대 정책, 7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자승 스님의 34대 총무원장 선거의 정책 슬로건은 '교구 중심, 한국불교의 미래'로 편성된 중앙의 행정 권한을 지방 교구로 이양해 교구본사가 포교, 교육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8대 운영기조는 △교구 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총무행정, 비구니 권익향상 △지속적인 자성과 쇄신으로 수행종풍 진작 △총본산 조계사 일대 성역화 완성 △재정 기반 구축을 통한 승가복지 △지속적인 승가교육 및 포교 혁신 △불교문화,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사민과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 지속 등이다.

특히 자승 스님이 교구 중심제를 선거 슬로건 전면에서 내세운 것은 그간 문제가 됐던 교구 간 행정 불균형과 현장에서 포교와 교육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승 스님은 4년 전에도 교구 특성화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들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자승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해 참종권 확대를 비롯해 비구니부 신설과 특별교구 설립 등을 세부 정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이날 자승 스님 선대위는 △청정수행풍도 진작 △자성과 쇄신의 지속적 추진 △승가복지 확대 발전 △서비스 중심의 총무행정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종단 교육 혁신 지속 △대대적 포교 혁신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현 △불교관련 제법령 개정 △종단 자주성 확보와 교권 확립 등 세부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의 숙원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인재를 두루 등용할 것이며 향후 전국 교구본사를 돌며 종단 비전과 미래에 대해 종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의견을 더 수렴하고 보완해 2차 정책발표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보선 스님 "청정승가 구현이 시대 과제"

보선 스님은 교단의 청정성 회복과 중앙과 교구의 협치를 이번 선거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선거 슬로건으로 '청정승가 구현으로 위기의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로 정해 잇따른 법계의 흑로도 물의를 빚은 종단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자승 스님과 차별점을 뒀다.

보선 스님은 9월 24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정책 공약으로 7대 운영기조, 8대 정책, 4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보선 스님이 제시한 7대 운영기조는 △수행종풍 확립과 청정교단 수립 △중앙과 교구의 협력 △공

자승 스님 안으로 교구·총무행정 혁신

밖으로 불교 사회화 통한 이미지 쇄신

보선 스님 청정성 회복 '솔선' 천명

"제왕적 원장 아닌 봉사자" 누차 강조

대우 스님 비구니 총회의원 10석 증원

장주 스님 선거 직선제 및 분담금 면제

혜충 스님 수행과 전법 중심 제도 개편

명정대한 총무 행정 △교육의 진흥과 인재 양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전법강화 △대승불교의 시대적 구현 △불교문화의 대중화 등이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 보선 스님은 무엇보다 종단의 청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설 명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자신이 솔선해 청정성 회복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될 경우 조계사에서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할 것을 비롯해 △새해에는 종도들과 제방 사찰서 정초 산립 기도 △매월 각 사찰서 초사을 기도로 종도와 신도들과 소통 △꾸준한 법회 참석한 통한 법문 등을 약속하며 스스로 솔선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밝혔다.

이날 정책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총무기관과 교구본사와의 협치(協治) 부분이다. 자승 스님이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 교구로 점진적 이양을 제시한 '교구 중심제'를 제시했다면 보선 스님은 중앙과 교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교구분권'을 내놓은 것이다.

보선 스님은 "교구 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인식과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총무원장 아닌 하심과 공경으로 교구에 봉사하고 지원하는 총무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비롯해 △직할교구의 독립성과 구역 조정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21세기 한국디지털대장경 사업' △통일, 환경, 노동 등 종단 내 대사회기구 내실화

등을 당선시 시행할 우선 정책 세부 과제로 소개했다.

대우 스님 "비구니 특별교구 신설"

이번으로 네 번째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대우 스님은 9월 26일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4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대우 스님은 정책 공약을 △총무수행 부분 △교육포교수행 부분 △재정 부분 △사회참여 부분으로 나눠 제시했다. 총무수행 부분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의 사부대중 직선제 실시와 임기 5년 단임제 실시, 비구니 스님 3개 특별교구 신설 및 중앙총회의원 10석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분야에서는 상설 행사수행원 신설을, 포교분야에서는 포교원 전법 개편을 약속했다. 재정 부분에서는 삼보정재 공개와 65세 이상 스님들의 노후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주 스님 "교구본사 중심 및 직선제"

장주 스님은 중앙분담금의 완전 면제를 주요 정책 공약으로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출마인 장주 스님은 △교구본사 중심제 및 중앙분담금 완전 면제 △수행종풍 도달 시 전원 원로의원과 △승려 징계제도 혁신 △입법을 통한 대사회 △모든 선거의 직선제 △수행승 우선의 복지불교 등 6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혜충 스님 "종경받는 승단이 우선"

혜충 스님은 9월 27일 제34대 조계종 집

행부 운영기조로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의 4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혜충 스님은 특히 수행과 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행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원로 중심의 안거수행과 승풍 진작 △일상중심의 생활수행과 제도 마련 △간화선 대중화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결계 및 포살제도의 발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장기 수행프로그램 마련 △수행자 대상 평생교육원 운영 △대사회적 봉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전법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신도시 거점 포교사찰 설립 △교육원과 포교원중심 시스템 개편 등을 약속했다. 또 전문포교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어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을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동진 승가교육기관(여원, 유지원, 초종고교)을 설립하는 등 동진출가 제도를 활성화해 출가자 감소와 인재 이탈현상을 막고 비구니 스님에 대한 교역적 총무원 증대, 자치책임제 도입 통한 교구본사로의 업무 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적소배치를 통한 인사투명정책 시행 등을 밝혔다. 종경받는 승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임기단임제 실시하고 종교법인법을 도입해 종단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비구니 권익 확대 7개 정책안 제시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각 선거캠프에 제안서 전달

조계종 중앙총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권익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중앙총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9월 23일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前 중앙총회의원 보선 스님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다른 3명의 후보 스님들과는 시간이 맞지 않아 중앙총회 사무처에 전달을 요청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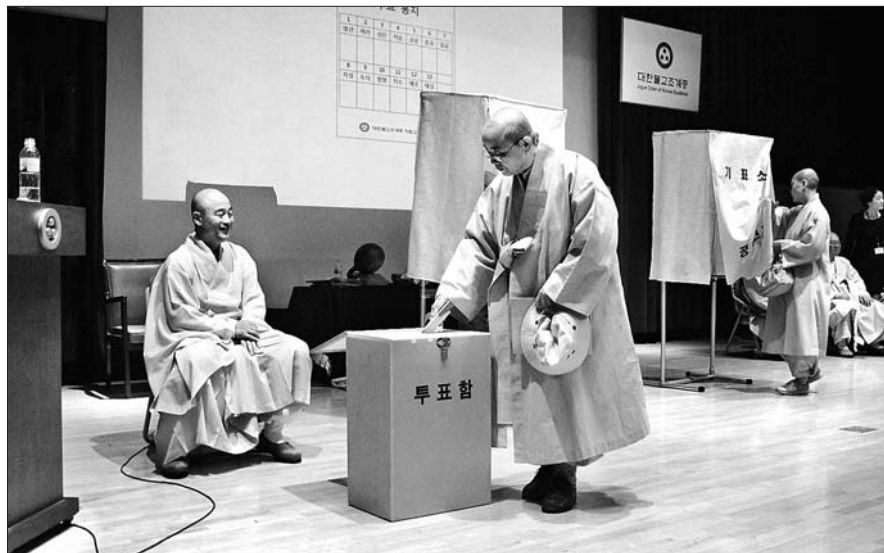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제시한 정책안은 총 7가지로 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정책안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관련법안 통과(비구

니 호제의원, 교구총회 30% 할당) △총무원 산하 2인의 비구니부장과 비구니국장 50% 할당 △각 교구본사에 비구니국장 30% 할당 △정부기관이나 종단산하 각종 위원회에 비구니 50% 할당 △(가칭)한국 비구니스승가연구소의 설립 △전국비구니회를 종단 운영의 정책파트너로 인정 등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

중앙총회비구니의원연구회장 일운 스님은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 각 후보 스님들께서 정책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드린 후, 비구니 승가가 요구하는 7개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취임 후 1년 이내 실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후보자를 제 34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교구 선거인단 선출 시작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완료됐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9월 25-29일 교구총회를 통해 교구별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선거인단 인원은 교구별 10명씩 총 240명이다. 종도들의 표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 온 직할교구 선거인단 구성은 자승 스님 측과 보선 스님 측이 5:5로 양분했다. 9월 26일은 2교구 용주사와 6교구 마곡사, 19교구 백양사, 24교구 선운사, 25교구 봉선사에서 27일은 5교구 범주사와 19교구 화엄사에서, 28일은 8교구 직지사, 14교구 범어사, 17교구 금산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7교구 수덕사와 10교구 은해사, 13교구 쌍계사, 22교구 대흥사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가 열렸다.

신종일 기자

“선거 폐단 없애려면 전통기반한 유신 필요”

9월 27일 한일불교유학생회 특별포럼에서 선거개혁 목소리

한일불교유학생회(회장 현해)는 9월 27일 서울 성북구 정방사에서 '조계종의 정체성과 지도자상'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단 총무원장 역사상의 제문제'를 발표한 김광식 교수는 총무원장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공통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총무원장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모순의 핵심은 선출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총무원장의 권한이 막강함에 따른 귀결이었다. 94년 이후 선거문화가 도입되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현행 간접 선거는 세속화, 금권정치, 종단정치, 종단 구성원 간의 대립, 많은 후유증 노출 등 문제를 발



김광식 교수

신규탁 교수

생하는 만큼 변화해야 한다"며 울장에 제시된 갈마의 방법을 총무원장 선출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조계종의 종지·종통에 나타난 문제점' 발표를 통해 "법맥·문종의식 등 조계종에 남아있는 봉건적 요소를 먼저 없애야 불교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4주년 개산대재 보살계·만등불사·중악 은빛음악회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4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뜻이 서린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년 9월

개산대재 대법회 10월 13일(일요일 음9.9)

-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부도전)
11시 율법공양, 개산법요식
오후 1시 30분 보살계 수계식
3시 중악 은빛 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동참금: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철(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보살계

3師 설정큰스님, 헤인큰스님, 법타큰스님

중악(中岳) 은빛 음악회

- 일시: 10월 13일 오후8시
출연: 김혜영, 배일호, 김성환, 장미화, 현숙, 김홍국, 전미경, 박운경, 박주희, 평양예술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종무소 054)335-3318~9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